

# 2010년엔 3억달러 돌파 가능하다

지난해 정부는 '2010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선진국 실현'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1990년 중반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돌파한 이래 IMF 구제금융 여파로 급락한 이후 2003년말 기준, 1만달러 수준을 겨우 회복한 우리나라로서는 실현 가능한 목표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분발이 요구되기도 한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 국내 수출의존도가 적게는 24.4% 많게는 41.6%에 이르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비전의 달성을 위해 수출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7월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참여정부의 비전인 2010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보여 2010년에는 수출규모가 연간 3800억달러 내외, 세계 수출 7~8위권에 위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두 자릿수 수출증가는 그리 쉽지 않은 과제이다. 특히,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부상으로 국내 수출증가율(1970년대 37.5%, 1980년대 15.3%, 1990년대 8.7%)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 무역환경도 세계경제의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국의 경제성장이

〈표1〉 최근 5년간 인쇄물 수출 실적

단위 : USD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인쇄서적, 소책자, 리플렛 이와 유사한 인쇄물	58,299	58,374	63,399	71,729	70,998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2,955	4,769	3,241	3,665	3,438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164	19	325	172	851
약보	15	12	31	3	3
지도, 해도 이와 유사한 차트	719	1,033	813	307	371
설계도와 도안	74,158	87,234	54,775	3,407	5,587
우표, 수입인지, 기타 유가증권	1,327	1,182	1,177	1,090	429
전사물	14,235	14,796	14,410	15,350	17,438
인쇄된 엽서, 인쇄카드	5,151	6,435	5,202	5,661	4,743
캘린더	14,512	18,591	19,494	17,799	21,858
기타 인쇄물	17,403	18,707	51,101	19,893	23,928
합계	188,938	211,152	213,968	139,076	149,644

〈표2〉 최근 5년간 인쇄물 수입 실적

단위 : USD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인쇄서적, 소책자, 리플렛 이와 유사한 인쇄물	57,376	89,575	110,475	112,972	118,473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19,556	22,407	25,383	22,102	21,978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3,113	4,680	6,892	7,530	5,701
약보	292	621	791	899	743
지도, 해도 이와 유사한 차트	1,274	1,237	1,532	2,076	2,020
설계도와 도안	992	6,259	933	2,040	1,338
우표, 수입인지, 기타 유가증권	10,070	20,111	2,895	1,691	2,976
전사물	5,600	6,822	8,500	9,803	14,731
인쇄된 엽서, 인쇄카드	757	749	679	1,428	2,814
캘린더	780	986	905	1,078	1,191
기타 인쇄물	28,139	36,063	57,999	61,477	42,732
합계	127,949	189,510	216,984	223,036	214,697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무역의 지역화 경향이 우리 수출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선 수출이 앞으로 7년 동안 평균 두 자릿수 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국내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에 인쇄업계에도 이미 3차레나 기록한 바 있는 수출 2억달러 선을 넘어 3억달러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이룩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대두된다.

제시된 국가비전의 2만달러 달성 조건과 같이 향후 7년간 연평균 11%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면 2003년말 현재 1억5천만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는 인쇄물 수출액도 2010년에는 3억1천만달러를 조금 상회하게 된다.

**수출액 규모 ... IMF직후시점으로 추락**  
국내외 산업 경기를 매우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인쇄업계는 국내외 호·불황 경기와 궤적을 함께 하며 성장해왔다. 그러면서도 인쇄업은 문화산업분야에서만큼은 결코 적지 않은 수출실적을 달성해왔다.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인쇄물 수출액 규모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돌파했던 1996년에 2억3천만 달러를 기록, 처음으로 2억달러 고지를 돌파했다. 그러다가 1997년 IMF 구제금융의 어두운 그림자와 함께 1억5천9백만달러 규모로 추락했다. 이후 인쇄물 수출실적은 경기 회복에 따라 다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지난 2000년에 2억1천1백만달러로 2

억달러선을 회복했다. 이후 김대중 정권 시절 중 최고의 호황기였던 2001년에는 2억1천4백만 달러선을 달성하며 인쇄물 수출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제2의 IMF가 찾아왔다고 고통을 호소하던 2002년에는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35%나 줄어든 1억3천9백만 달러선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리고 지난 2003년에도 2002년의 수출량보다 다소 증가한 1억5천만 달러선에 근접했지만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쳐 IMF 직후시점의 실적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 설계도·도안 금감 서적·소재자·리플렛 꾸준한 증가

인쇄물 수출실적이 급락하게 된 배경에는 북핵 위기, 이라크 전쟁 발발, 사스 등의 여파로 제2의 IMF라 불릴 만큼 어려웠던 2002년 이후의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2000년까지 인쇄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설계도와 도안의 실적이 2002년에 전년 대비 무려 94% 이상(약 5천1백만달러) 감소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는 2002년 인쇄물 수출규모 총감소액인 7천5백만달러 정도의 약 70%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설계도와 도안의 수출액이 2003년에는 558만7천달러에 이르러 다소 증가했으나 이 역시 2001년 실적의 약 10%에 불과한 규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서적, 소재자, 리플렛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의 경우에는 이기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설계도와 도안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의 자리를 넘겨받은 이래 2003년에도 전체 수

출액의 약 50%를 점하고 있다.

또한 캘린더가 2185만8천달러로 2392만8천달러를 기록한 기타인쇄물 바로 뒤에서 최대 수출 품목 2위 자리를 다 두고 있다. 그 외에는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이 단연코 눈에 띈다. 아직 85만1천달러 규모에 그쳐 전체 수출액 대비 5.7%에 불과하지만 전년대비 성장률로 보면 500%에 가까운 경이적인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에 우표, 수입인지, 유가증권류는 42만9천달러에 머물러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평균실적에 비해 50% 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또한 지도, 해도, 이와 유사한 차트도 2002년에 전년 대비 40% 이하로 크게 줄어든 이래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표1 참조>

#### 인쇄물 수입 ... 2억2천만달러 선에서 안정

2001년 2억1천만 달러선에서 인쇄물 수출액 규모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인쇄물 수입액은 인쇄물수출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2002년과 2003년에도 2억2천만 달러 내외에서 안정을 유지했다. 인쇄물 수입실적이 안정세를 보인 것은 국내 인쇄산업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쇄산업이 언제든지 재도약 할 수 있음을 반증한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 가운데 인쇄서적, 소재자, 리플렛, 이와 유사한 인쇄물의 수입실적은 2000년에 56% 증가한 이래 1억1천만달러 선을 유지하며 전체수입액의 50%를 상회했다. 또한 인쇄된 엽서, 인쇄카드 품목은 2002년에 전년대비 110%라는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인 이래

2003년에도 97% 증가했다. <표2 참조>

기자재 수출입 인쇄기가 좌우

각종 기자재 수출을 비롯, 국내업체에서 퇴출 되는 많은 노후 인쇄기의 중국·동남아시아 등지로의 수출에 따라 인쇄기자재 수출실적이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인쇄기자재 수입실적은 그 전해 인쇄물 수출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2년 1억달러를 넘어선 인쇄기자재 수출액은 2003년에 1억3043만4천달러에 달했다. 인쇄기자재 수출 실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쇄기 수출 실적은 2002년도 6534만5천달러로 2001년 4313만5천달러에서 51% 증가한 이후, 2003년에도 7757만1천달러를 기록했다. 제본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용 기계도 2003년에 4598만6천달러치를 수출했다. <표3 참조>

반면에 인쇄기자재 수입실적은 2002년에 4억7945만1천달러까지 치솟았으나 2003년에 3억9377만4천달러로 다소 감소했다. 또한 인쇄기자재 수입의 약 70%에 달하는 인쇄기 수입액은 2003년

에도 3억2293만1천달러에 달했다. 특히 인쇄물 수출실적 사상최고치를 달성했던 2001년도 결과에 부응, 2002년에는 무려 3억9481만9천달러치의 인쇄기가 수입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제본기계도 2002년에 2838만9천달러치가 수입된 이래 2003년에도 2084만1천달러치가 수입됐다. <표4 참조>

대내외 여건 호전 조짐 곳곳서 관측

위와 같은 통계결과에서 나타나듯 인쇄산업은 국내의 경기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부침을 거듭해 왔다. 이는 현재 1억5천만 달러에 불과한 인쇄물의 연간 수출액 규모가 각 산업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하며 3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행히 최근에는 대내외 여건의 호전 조짐이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다.

2002년 이라크전쟁을 전후해 급랭했던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12년째 저성장애 머물던 일본 경기도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전해진다. 국내 경기도 이제는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는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며 얼어붙었

<표3> 최근 5년간 인쇄기자재 수출 실적

단위 : USD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제본기계	3,265	2,997	2,455	3,334	2,641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용 기계	31,333	42,039	34,516	33,345	45,986
활자의 주조용, 식자용 기기 및 부분품	2,388	2,262	1,881	2,774	3,457
인쇄기	43,466	48,412	43,135	65,345	77,571
인쇄제판용의 카메라	131	155	202	17	5
인쇄제판용 롤상필름 자동 현상기기	181	3	430	657	774
합계	80,774	95,868	82,619	105,472	130,434

<표4> 최근 5년간 인쇄기자재 수입 실적

단위 : USD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제본기계	6,436	22,084	19,391	28,389	20,841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가공용 기계	27,911	46,527	37,691	32,737	32,127
활자의 주조용, 식자용 기기 및 부분품	8,839	5,639	9,021	12,488	9,548
인쇄기	171,295	319,743	251,794	394,819	322,931
인쇄제판용의 카메라	8,421	7,458	3,268	4,252	2,386
인쇄제판용 롤상필름 자동 현상기기	6,585	13,642	6,627	6,766	5,941
합계	229,487	415,093	327,792	479,451	393,774

던 각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은행이 조사한 인쇄업의 생산지수도 지난해 7월 79.9포인트로 최저점을 지난 이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지난 12월에는 110.3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3년 1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중소기업 평균 생산지수 밑으로 떨어진 이후 만 12달만에 중소기업의 평균지수인 109.3을 소폭으로 넘어선 결과다. 또한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인쇄업 업황 경기지수도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지난해 8월 54포인트를 기록하며 바닥을 통과한 이래 꾸준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올해 1월에는 78포인트까지 회복됐다. 특히 이 수치는 전달에 전망했던 67포인트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003년 수출입 실적 평가'에 따르면 2003년의 국내 수출실적은 1943억3천만 달러로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며 155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인쇄물의 수출도 지난 9월부터 전년 대비 실적을 앞지르기 시작해 지난해 12월에는 1518만4천 달러를 기록, 882만1천달러에 머물렀던 전년 동월에 비해 무려 72.1%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신규시장 진출  
대내외적인 여건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인쇄업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과 신규시장의 확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인쇄물의 품질을 더욱 개선하고 고급화를 실현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대두된다.

〈표5〉 최근 2년간 미·일·중 3국 인쇄물 수출 실적

단위 : USD

	미 국		일 본		중 국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인쇄서적, 소책자, 리플렛 이와 유사한 인쇄물	48,895	39,654	9,839	11,093	290	764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1,479	1,516	1,610	1,408	157	250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91	462	16	1	0	10
약보	1	0	0	0	1	3
지도, 해도 이와 유사한 처트	8	14	250	287	0	0
설계도와 도안	747	145	882	935	378	121
우표, 수입인지, 기타 유가증권	15	0	5	120	0	11
전사물	3,727	3,569	163	81	1,502	2,351
인쇄된 엽서, 인쇄카드	2,538	1,744	1,759	1,742	335	479
캘린더	15,101	18,189	1,607	1,657	38	69
기타 인쇄물	8,805	9,581	2,109	2,172	1,207	3,888
합계	76,407	74,874	18,240	19,496	3,908	7,946

또한 국내 인쇄물 수출은 미국, 일본, 중국 등 3국에 70%(2002년 70.1%포인트, 2003년 68.4%포인트)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편중돼 있다. 이는 9283만8천 달러로서 전체 2억1396만8천 달러의 43.4%포인트에 불과했던 2000년의 수출실적 3국 편중 비율이 크게 심화된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2002년 54.9%포인트, 2003년 50.0%포인트에 달했다. 〈표5 참조〉

이에 유럽지역을 비롯한 해외 각지에서 신규시장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물론, 고부가가치 인쇄물의 수요량이 많은 선진국가로의 진출이 더욱 실효성이 높다.

현실문제 파악, 정부지원책 활용  
또한 인쇄물 수출 3억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인쇄업계 내부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목표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인쇄업계에는 수출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수출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

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며 업무 진행시 발생하는 클레임처리 등의 문제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돌출하곤 한다. 또한 인쇄품질과 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 있지 않아 각 업체간 차이가 발생, 해외시장에서의 신뢰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이에 전문성을 가진 수출일꾼들의 확보와 품질 및 가격, 서비스 등에 대한 인쇄업계의 표준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쇄업계는 중소기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쇄물 수출 3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쇄업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수출전선 변방에 머물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 중소기업체들은 직접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러한 여건의 중소기업체들은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정부기관의 해외시장 발굴 및 수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조갑준 기자〉